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창조신화 : ‘알(卵)’의 상징성 중심으로

김진숙*

국문초록

본 논문은 창조신화들 중 특히 ‘알’이 출현하는 창조신화를 중심으로 그 상징성을 살피고, 이를 무의식적인 내용물에서 출현하는 ‘알’의 모티브와 비교하여 무의식적인 영역에 속하는 창조신화의 상징성을 의식적인 영역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먼저 창조신화가 원형적인 투사현상으로서 무의식에서 자아가 탄생하는 것과 관련되며 인간의 의식적인 깨달음의 기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개인사나 인류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할 때 무의식에 의하여 저절로 만들어지는 현상으로서, 자아의 자세에 따라서 새로운 의식의 도약이나 재건의 조짐이 될 수도 있고 무의식이 자아의식으로 침범하게 될 수도 있음을 논한다. 관련문헌으로서 창조신화에서 출현하는 ‘우주 알’을 우주창생의 원 질료이자 자기의 상징으로 보는 융, 폰 프란츠, 노이만, 하딩, 에딘저의 연구를 소개한다.

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인 의미에서 ‘태초의 혼돈(*messa confusa*)’은 고태적 동일시(무의식), 유아기의 경험, 혹은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우로보로스적인 경험으로서 분리를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자의 우화에 등장하는 상제(上帝)로서의 혼돈이나, 연금술에서 검은 색의 단계인 니그레도(*nigredo*)가 가지는 의미에서 볼 때 너무 성급하게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임상에서 시사하는 바를 논한다. ‘천지개벽(분리)’은 객체로부터 주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자아가 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의식의 진보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보면서 연금술의 분리과정(*separatio*)과 연관하였다. ‘빛’은 의식성의 획득으로 보았고, 자아의 자세에 따라 다른 경험의 될 수도 있음을 논하면서 창조신화의 전 과정의 의식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에스키모 창조신화를 통하여 소개한다.

‘알’이 출현하는 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의미에서 먼저 ‘알’에 대한 확충과, ‘알’이 출현하는 창조신화들, 그리고 시조 신들의 모체로서의 ‘알’을 소개하고 ‘알’이 자기의 상징과 다르지 않음을 논한다. ‘알’의 상징성을 알의 출현-품기-분리로 보고 ‘알 출현’의 심리학적 의미를 창조론적인 싹인 시바점(*Shiva bindu*), 히라냐가르바(*Hyranagarba*), 황금알(태)의 의미와 자궁 또는 ‘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교의 여래장(如來藏)과 진여(眞如)와 연관하였고, ‘세계 알’이자 연금술의 용기로서의 메르쿠리우스이자 세계의 창조혼(*Geist*)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알 품음’의 심리학적 의미는 스스로에게 리비도를 집중하는 타파스(*tapas*)로서, 발렌티우스(*Valentinus*) 문헌의 오토파터(*autopater*)와 그의 내면의 여성성인 엔노이아(*ennoia*)를 품음으로서 세상을 만드는 것과,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주역(周易)의 61괘 중부(中孚)가 가지는 의미인 내적인 진실과, 원효의 지관(止觀)사상, 그리고 ‘밤의 항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연관하였고, 연금술적으로 메디타치오(*meditatio*)의 의미를 가지며, 알의 출현과 품음에 고뇌와 고통이 동반됨에 대해서 논한다.

‘알 분리’의 심리학적 의미는 미망의 껍질을 벗고 시공을 초월하는 태양적, 의식성의 획득으로서 알에서 출현한 초 개인적인 새의 의미를 새로운 인격의 출현으로 보았고, 연금술적으로 분리과정(*separatio*)와 상승과정(*sublimatio*)과 연관하였다.

‘알’과 관련된 임상 자료들을 통하여 ‘알의 상징성’(알 출현, 품음, 분리)이 피 분석자들의 무의식의 자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알의 상징성에서 보여주는 전 과정이 내(자아, 주체, 분화됨)가 나 아닌 것(무의식, 객체, 미분화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관련되며 인간정신의 전체성을 지향하는 자기실현과정과 다르지 않음을 논하는 것으로 마감한다.

중심 단어 : 창조신화 · 알 · 타파스 · 의식성.

들어가며

창조신화(creation myths)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이야기로서 우주 창조신화(또는 창세신화, cosmogony)와 신창조신화(theogony), 그리고 인간창조신화(anthropogony)로 구성되어있다.¹⁾

대부분의 창조신화는 어둠이나 혼돈으로 시작된다.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어둠은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접하게 되면 원형적인 투사를 한다.”²⁾ 원형적인 정신의 내용물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보편적인 경험 및 조건들과 거기에 대응하는 정신의 패턴인 본능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창조신화는 실제적인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및 전(前)의식적(pre-conscious) 과정에 관한 것이고, 인간이 모르고 있던 것(무의식)을 깨우쳐가는(의식화) 것의 기원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계를 전체로 혹은 내 주위환경을 인식하기 전에 무의식 안에서 많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⁴⁾

많은 민족의 창세기는 태초에 혼돈 혹은 흑암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지 않은 채 서로 뒤엉켜 있다가 빛이 출현한다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최초로 무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무의식에서 자아의식이 구분/씩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의식은 자아의식을 탄생시킨 모체인 것이다.⁵⁾

1) 국내에서 손진태가 처음으로 창세가, 그 다음으로 천지개벽신화, 창세시조신화, 창세신화가 되면서 창세신화가 일반화된 용어가 되었고 창조신화와 병행해서 써도 좋은 용어이다. 김현선(2001) : 세계의 창조신화 서설,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연구총서 1, p17.

2)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3-5.

3) “인간이 텅 빈 어둠을 탐구하려 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생명력 있는 형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투사는 계속된다”. 융 CG(2004) : 융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38.

4)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11.

아기의 탄생과 성장은 창조신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무의식자체라 할 수 있지만 백지상태가 아니고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품고 있으나 아직 어둠 속에 있거나 드러남이 미약하지만 장차 성장하면서 발휘하게 될 모든 정신활동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⁶⁾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하듯이 우리가 아기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시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창조신화를 분석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 한 개인의 아기시절, 즉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의식, 전의식의 내용물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무의식의 내용물을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아(나, 주체)가 무의식(나-아닌 것, 객체)과의 동일시에서 분리되는 의식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창조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자 무의식이 창조신화를 내보내는 목적의미라 할 수 있다.

융은 창조신화가 전의식 혹은 무의식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호하여 의식적인 용어로 다루기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물이 의식영역에서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철학적인 견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의식영역에서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인 개개인의 투사 체험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⁷⁾ 본 논문의 취지는 무의식과정의 산물인 우주창생의 근원자원 질료가 되는 창조신화적인 맥락에서 본 ‘알’의 상징성을 통하여 내(자아)가 나 아닌 것(무의식)에서 분리되는 의식화 과정이라는 창조신화의 상징성을 의식영역에서 이해하고자 함에 있다.

창조신화 모티브가 나타나는 조건

많은 문명의 창조신화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조건하에서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때마다 창조신화를 구송했고,

5)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인 관점은 어떻게 자아가 위험한 무의식의 충동을 승화시키는 나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융은 어떻게 자아가 무의식의 창조성을 받아들이느냐에 집중한다. ‘자기’와 ‘자기실현’의 관념은 무의식에 창조적 기능이 있다는 견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학설이다.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pp33-34.

6) 위의 책, p33.

7) 융 CG(2004) : 융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38.

중세 초기에 새로운 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바이킹 족이나 앵글로 색슨족은 제단을 세우고 창조신화를 엄숙하게 이야기해왔다.

인류문화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창조신화들이 구송 되었던 것과 같이 개인의 정신의 경우도 신체적 위협이나 정신적으로 해리될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무의식이 다른 형식으로 창조신화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창조신화의 요소나 전형적인 모티브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체험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들을 통하여 정신분열증 발현을 예시하는 꿈이나 환상으로서 원자 폭발, 세계의 종말, 별들이 떨어짐 등의 세계의 파괴와 관련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신분열증 발현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나 정신분열증의 급성단계를 지나갈 때에도 환상과 꿈에 창조신화의 모티브가 재창조되고 현실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자가 창조신화 모티브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새로운 인격의 재건을 도울 수 있다.⁹⁾

심리학적 유형에서 융은 “자아가 의식성의 운반자(carrier)”¹⁰⁾이고 자아 없이는 의식성의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자아는 무의식에서 탄생한다. 그 속에 점유되어있는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은 다시 삼키려고 하는 무의식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요한다.

의식의 크고 작은 진보는 원초적 시원의 전체성과 전체 체계의 어떤 균형이 파괴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창조적 과정, 의식의 태도 변화 등 모든 확장과 변화와 관련 된다고 융은 말한다.¹¹⁾ 창조신화 모티브는 무의식이 의식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진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발견하게 되고 의식이 크게 점프하듯이 발전해 나아갈 때에 깨달음의 빛, 혹은 빛의 씨앗 등의 창조신화 모티브가 꿈에 나타난다. 마치 아동의 신체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이따금씩 발작하듯이 성장하듯 인간의 심리발달도 점프 하듯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의식의 영역이 갑자기 확장되는 기간이 있고 의식의 확장이나 재건이 갑자기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조명(illumination)”이나 계시를 얻는 경험을 한

8)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24.

9) 위의 책, pp13-14.

10) Jung CG(1921) :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700.

11) 위의 책, p161.

다.¹²⁾ 창조신화가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급격한 성장이나 무의식에 의하여 자아가 침범 당하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창조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창조신화와 ‘알’관련 선행연구

창조신화와 관련되는 연구를 한 분석심리학자로서 노이만, 폰 프란츠, 하딩, 에딘저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창조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다른 신화나 민담에 대한 연구보다 그 양이 많지 않고 무의식의 창조성과 자기실현과 연관된 자료에서 편린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창조신화 및 개벽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으로는 C.G. 융의 ‘자기’와 ‘자기실현’관점에서 창조신화에서 개벽이 되는 것이 자아가 무의식에서 탄생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 이부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³⁾ 이유경은 창조신화로 분류되는 신화들이 표상하고 있는 심상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명을 하는 연구에서 창조신화와 연관되는 전형적인 심상들이 의식의 탄생과 관련된 심리학적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융과 분석심리학 관련 문헌을 통하여 개관하였고,¹⁴⁾ 서동혁은 제주도 신화 중심으로 창조신화의 상징성 해석을 했다.¹⁵⁾

Von Franz의 저서 <민담에 나타나는 그림자와 악>에 2개의 러시아 민담에서 두꺼운 층 속에 있는 ‘알’과 다이아몬드 ‘알’이 등장한다.¹⁶⁾ 첫 번째 소개되는 ‘알’은 어느 섬 안에 한 교회, 그 안에 한 마리의 새, 그 안에 있는 한 개의 ‘알’로서 의식이 한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두꺼운 층(거인)으로서 과거사, 미망(maya)을 의미하며, 그 ‘알’을 손안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 거인의 죽음이자 미망의 사라지는 가능성을 손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두 번

12)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13-14.

13)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pp33-35.

14) 이유경(2001) : 창조신화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 연구 총서 1권, pp291-343.

15) 2000년 한국 융 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

16) Von Franz ML(1995) :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1964 강의),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265.

째 ‘알’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나무꾼이 8가지의 동물을 만나게 되고 지하세계로 공주를 잡아간 악마를 퇴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8가지의 동물로 변하게 된다. 마지막에 파리로 변한 나무꾼이 지하로 통하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공주를 구출했으나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떤 나무에 있는 다이아몬드 ‘알’이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내용이다.

다이아몬드는 동서양 연금술과 철학 모두에서 파괴할 수 없는 것(par excellence)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자기의 상징으로서 파괴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고 지하에서 지상, 즉 현실세계 속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첫 민담의 오리 속에 있는 ‘알’은 내면의 삶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목표인 의식성에 한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지하의 ‘알’이라 한다면 두번째 민담의 다이아몬드 ‘알’은 지하에 머물고 있는 이 ‘알’을 지하에서 현실세계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알’이라고 했다.

‘알’과 관련되는 문헌으로서 융의 <붉은 책>을 빼놓을 수 없다. <붉은 책>은 융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적극적 명상을 시도했던 1913~1919년까지 6년간(실제로는 1927년까지 14년간)의 경험을 성실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1913년 10월부터 시작한 10번의 모험으로 구성된 적극적 명상 작업 중 7번째 모험(12/26/13에서 2/23/14)의 작업에서 융이 영혼의 모상이라고 본 ‘알’의 출현-품음-부화의 모티브가 나오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7번째 모험은 3일로 구성되고 있는데 첫째 날(1/8/14)에 거인과의 만남, 둘째 날(1/9/14)에 거인이 ‘알’로 변하고, 셋째 날(1/10/14)에 ‘알’을 깨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¹⁷⁾ ‘알’의 출현과 ‘알’을 경배하고 그리고 ‘알’을 쪼개는 전 과정을 통하여 프로이트와의 결별로 혼란스러웠던 융이 침체에서 벗어나 보다 더 창조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붉은 책> 작업 약 15년 후에 소개한 여성의 사례에서 과거의 삶을 대변하는 미망으로서 환자를 압도해 왔던 과거사의 인격화인 거인의 위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을 때 거인이 ‘알’이 되고 고통과 미망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⁸⁾

거인과 ‘알’에 대한 꿈은 이부영의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남자가 방을

17) Jung CG(edi. Shamdasani 2009) : *The Red Book*, W.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pp281-283.

18) Jung CG(1930-1934) : *The Vision Seminars I. II.*, Spring Publications, Zurich, Switzerland, pp116-132.

향해 “네가 귀신이나, 사람이냐? 밖으로 나와라!” 했더니 안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어른 키만큼이나 되는 커다란 ‘알’이 튀어나왔고 그 ‘알’을 넘겨주면서 어서 갖고 도망가라고 했고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커다란 ‘알’을 굴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피분석자가 동생과 함께 도망가면서 굴리는 커다란 ‘알’이란 현재로서는 타파스(집중)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알’ 창조와 재생의 뒷면, 즉 무의식적인 탐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그곳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시급하며 꿈 꾀 자가 ‘알’을 굴리면서 도망간다는 것이 자기의 그림자가 가진 지배력에서 해방되기 위한 의식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보았다.¹⁹⁾

창조신화와 관련되는 ‘알’의 분석심리학적인 자료로서 폰 프란츠의 태초의 혼돈에서 탄생하는 배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알’은 세상을 현재의 형태로 품고 생산된 창조론적인 배아로서의 ‘알’과, 현재의 ‘알’은 내향, 즉 사고와 명상을 통하여 세상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금술의 ‘세계 알’은 모든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는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며 ‘알’을 품는 집중(타파스)을 통해서 ‘알’이 분리 되고 의식성이 탄생한다고 하였다.²⁰⁾

이상의 ‘알’에 관련된 문헌들은 같은 ‘알’이라도 나타난 형태와 출현배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분석과정에서 ‘알’이 출현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경우도 ‘알’의 출현배경과 그들이 해야 하는 작업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²¹⁾ 그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신의 배아 같은 ‘알’의 출현 조건에는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가 있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집중하는 자아의 태도가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무의식에서 솟아난 ‘알’의 모티브는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창조신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 정신 활동의 목적 의미는 빛을 향하는 의식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식(빛)의 출현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세계가 등장함을 의미하고 한 개인에게는 새로운 자세를 갖춘 자아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19)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pp190-193.

20)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24-225.

21) 김진숙(2012) :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수료논문.

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의미

1. 태초의 ‘흑암(혼돈 *Messa confusa*)’의 심리학적 의미

대부분의 창조신화에서 태초²²⁾는 암흑과 혼돈이다. 암흑은 혼돈, 탄생, 창조, 귀신의 시간, 도둑, 흥사, 공포, 새 생명의 배태, 고통, 음, 여성, 여유, 불명, 금기, 귀신의 무대, 절망, 죽음, 안식, 환희, 암흑, 퇴행, 모성, 밀회의 시간을 뜻한다.²³⁾ 낮이 의식의 시간이라면 밤은 무의식의 시간이며 혼돈으로서 암흑이 새 생명이 배태하고 탄생하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자 모성, 풍요 그리고 밀회의 시간으로 암흑과 어둠의 시간으로 잠, 휴식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다. 이러한 밤은 낮에 그냥 놀다가 맞는 시간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 어둠이 다가온 한참 뒤까지 열심히 전체를 위한 목표를 향해 일하다가 지친 자에게만 주어지는 휴식의 시간이자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태초의 혼돈과 암흑은 자아가 무의식으로부터 태어나기 전,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노이만은 태초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경험을 개인이 수동적으로 접유 당하고, 플레로마(*pleroma*), 즉 쾌락의 대양 속에 있는 “스스로의 꼬리를 문 자”라는 의미의 우로보로스(*uroboros*)의 경험에 해당한다고 했다.²⁴⁾

유아기의 경험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개인들의 생의 초기의 경험이자 자아가 탄생하기 이전의 경험으로서 노이만은 모든 인류들의 지나온 오랜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로보로스 상태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보았다.²⁵⁾ 유아기, 즉 개인적인 삶의 초기 단계는 정상적으로 무의식적인 정신과 외부세계 사이에 차이가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마치 인간이 에텐동산 같은 낙원에 거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⁶⁾ 이 단계의 자아는 아직 탄

22) 태초(太初)는 세계의 시작 또는 원기의 시작이고 혼돈(渾-흐릴 혼, 섞일 혼 沌-기운 덩어리 돈)의 의미인 chas를 “천지창조 이전의 혼란, 무질서, 대혼란”으로서, “질서와 조화의 구현으로서의 우주창조, 천지만물, 완전세계 및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smos와 반대이다(영한 엡센스 사진).

23) 한국문화상징사전 2, pp256-259.

24) Neumannn Erich(1949) : *The Origins of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Foundation In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p27.

25) 위의 책, p12.

26) 위의 책, pp12-13.

생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어둠은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품고 있다. 이러한 씨앗들은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나 아직은 어둠 속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거나 그 드러남이 극히 미약하여 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자아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자아는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²⁷⁾ 심리학적으로 태초의 혼돈과 우로보로스 상태는 배아와 같은 자아(germ of ego consciousness)가 고태적인 동일시(archaic identity)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태적 동일시는 신체와 정신이 생명활동 속에 하나로 융합되어있던 나와 너, 주관과 객관이 분명하게 나뉘기 전인 원초적 상태로서 의식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집단적 무의식 상태와 동일시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²⁸⁾

혼돈 또는 우로보로스 상태의 경험은 원시인이나 유아들에게는 정상적 경험으로서 모두가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고태적인 동일시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경우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세포분열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²⁹⁾

태초의 혼돈은 한결같이 성급하게 벗어나거나 떠나보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태초 이전의 혼돈에는 앞선 지식(foreknowledge), 또는 아직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지식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⁰⁾ 이것의 의미는 노이만이 말하는 원초적인 대양(primal ocean)이자 창세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원의 상징인 우로보로스가 가지는 속성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근원적인 지혜가 이 세상 이전 또는 자아형성과 의식이 도래하기 이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로보로스 상태 속에서 죽음 후의 존재나 탄생 이전의 존재는 동일한 것이다. 삶과 죽음의 바퀴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³¹⁾

27)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p33.

28) 융은 심리적인 유형론에서 고태적인 동일시는 동등한 것(equation)이 아니라 선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a priori likeness)이고 이것은 의식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C.G. Jung, CW 6, p441.

29)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4.

30) Neumannn Erich(1949) : *The Origins of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Foundation In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p24.

31) 이것은 새로운 탄생의 바퀴이며 <티벳사서>에서 만약 死者가 사후에 가장 높은 지식을 터득하지 못하면 다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탄생하는 자에게는 사후의 지시사항이 탄생이전의 해야 할 것의 지시와 동일한 것이다. 위의 책, p23.

중국의 고대신화에서 혼돈은 천신(天神)의 이름이다. 남해의 임금 숙(熟)과 북해의 임금 흘(忽)은 중앙의 임금인 혼돈과 자주 만났다. 혼돈은 늘 그들에게 친절했다. 숙과 흘은 혼돈의 친절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간은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쉴 수 있는데 혼돈은 그런 것이 없으니 그를 위하여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였다. 매일 그들은 혼돈에게 하나씩 구멍을 뚫었고, 7일째에 그는 죽었다. 숙과 흘의 배려가 혼돈을 죽인 것이다.

변화무쌍하거나 성급함이 혼돈, 즉 무의식을 죽게 한다는 사실은 성급한 경향을 가진 현대인들, 특히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심리 치료사들의 무의식에 대한 성급하고 현란한 해석이 오히려 그 의미를 파괴 한다는 교훈을 준다 고 하겠다.

2. ‘천지분리’의 심리학적 의미

일반적으로 하늘은 정신의 더 영적인 측면을 상징하고 땅은 더 물질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천지가 분리된다는 것의 심리학적인 의미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의식적인 것이 되기 전에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의 의미는 이원성이나 대극성 없이 의식적인 과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 두 부분으로 분리되는 것은 모든 의식적 깨달음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²⁾

천지의 대극으로 쪼개진 사이에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인간의 의식적인 자아가 살아가고 의식성이 거하는 공간은 대극적인 것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전시대 철학자들과 피타고라스에 의해 발견된 양극성(enantia)도 하나에서 대극적인 둘이 되는 분리과정으로서 서구적 의식(Western consciousness)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의식성을 획득하려면 대극적인 요소들을 인내하고 포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리과정은 신비적인 분유(participation mystique)상태의 미성숙한 자아가 동일시해 오던 것을 포기하면 일어나는 것으로 심리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의식성이 증대되기 위하여 주체는 객체로부터 반복해서 분리되어야 한다.³³⁾

32)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84-85.

33) Edinger E(1984) :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ner City Book, Toronto, p36.

태초의 혼돈이 천지로 분리되는 과정의 이미지는 연금술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과정들을 떠올리게 한다. 연금술에서 원질료(*prima materia*)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유한 상반되거나 미분화(*undifferentiated*) 된 혼합물로서 분리의 과정을 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금술의 문헌에 의하면 주체(*subject*)와 객체(*object*)가 분리되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초보적인 분리(*elemental separatio*)에 해당된다. 연금술서 Emerald Tablet에는 “진지하고 부드럽게 불로부터 대지를 정교함, 그리고 고밀도(*dense*)로부터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함(*subtle*)을 분리하라.”라고 한다. 두 개로 분할하는 분리의 심리학적인 의미는 대극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의식이 출현(*emerge*)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³⁴⁾

3. ‘빛’의 심리학적 의미

모든 창조신화는 빛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에서 창세는 빛이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³⁵⁾는 점에서 모든 우주발생론(*cosmogonies*)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빛은 의식성과 계몽(*illumination*)의 상징으로서 오직 빛의 의식성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의식(*consciousness*)은 라틴어의 *conscire*에서 유래하며 아는 것(*to know*),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to be cognizant of*)을 의미하며 무의식이나 전의식적인 마음에 반대되는 의식적인 마음에 적용하는 명칭이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용어로서 내성(*introspective*)을 통한 의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이 정의될 수 있다. 알게 되는 것(*knowing*)은 천지부모의 분리로 객체로부터 주체가 분리되어, *subject*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알려지게 됨(*being known*)은 심리치료과정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known object*(알아지게 된 존재)가 되는 경험을 보는 무의식의 눈(*fish eye*)으로 의식화 되는 과정에는 보는 것(*seeing*)과 보여지는 것(*being seen*)을 필요로 한다.³⁶⁾

어둠(무의식)에서 빛(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전의식 상태가 의식상태가 되는

34) 위의 책, p187.

35) Cassirer Ernst(1965) :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 Volume 2 : Mythical Thought, Ralph Manheim(Translator), Charles W. Hendel(Contributor), Yale University Press, p96.

36) Edinger E(1984) :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ner City Book, Toronto, p35.

것으로 집단적 무의식과 고태적인 동일시에 머물러 있는 자아가 무의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성은 원초적인 우로보로스적 용의 소굴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에 필요한 인류의 노력 위에 새겨져 있는 슬로건이나 암호로서 놓여남(deliverance)과 동의어라 해도 좋다.³⁷⁾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을 빛의 회복의 의미인 광복절(光復節)이라 부르는 것도 빛이 놓여남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의식성의 근원과 빛 그리고 자아출현과 관련하여 용은 “자아의식을 수많은 작은 빛들로 둘러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³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개념은 연금술사 쿤라트가 “미래 세계의 씨앗”이라고 칭한 빛의 씨앗이 혼돈 속에 뿌려져 있다는 것과, 빛의 종자에 관한 영지주의(그노시스)의 교리나 작은 불빛에 관한 마니교의 교리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³⁹⁾

죽음/어둠에서 부활/빛의 상징을 가진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깨달음이란 빛을 접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의하면 진여(眞如)의 상(相)은 “큰 지혜요 광명(大智慧光明)이며 세상의 모든 대상계를 두루 남김없이 비취주듯이 환히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遍照法界)이며 있는 그대로 참되게 아는(眞實識知)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방향함도 더럽힘도 없는 밝고 깨끗한 마음(自性淸淨心)을 본성으로 하고 있으며 영원지복(永遠至福) 하고(常樂, 자유자재하며(我) 번뇌(煩惱)가 없다(淨) 하였다.”⁴⁰⁾

빛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부영은 빛의 체험을 한 11명의 정신병환자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이 체험한 빛의 내용은 같으나 수도자들이 가지는 주의 깊은 자세가 결여되고, 자아가 지리멸렬해서 그들이 체험한 원형상을 현실에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⁴¹⁾ 따라서 빛이 깨달음과 탄생이 될 수도 있지만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자아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빛은 전통적으로 영혼(spirit)과 동등하게 여겨져 왔다. Ely Star에 의하면, 영

37) Neumannn Erich(1949) : *The Origins of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Foundation In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p105.

38) 용 CG(2002) : 용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p49-50.

39) 위의 책, p50.

40) 밝은 지혜의 빛이 비칠 때 느낄 수 있는 삼매의 경지를 표시한 것(원효, 291-292). 이기영(1976) : 원효사상, 원음각, 서울, p282.

41) 이부영(1980) : 精神病患者의 體驗에 나타난 原型像(1), 빛의 體驗을 중심으로 最新醫學 Vol. 23. No.1/(43)53-(54)64.

혼(spirit)의 고귀함(superiority)이 직접 인식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빛남의 광도(luminous intensity)에 의해서이다. 이는 빛이 또한 창조적 힘, 우주적 에너지, 방사(irradiation)이기 때문이다.⁴²⁾ Isaac Luria의 카발라에 나타나는 어둠 속에 흩어져있는 빛을 다시 수거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창조신화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태초에 신이 창조할 때 그의 성스러운 빛을 그릇들, 향아리들에 부어 넣었다. 그러나 그릇들이 빛의 강한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고 빛은 새어나가고 말았다. 세계의 구원은 바로 이 부서진 그릇들을 복원(restitution)하고 흩어져 버린 빛을 다시 모으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⁴³⁾ 신화를 담지 못하고 깨어진 그릇들과 영혼, 빛을 다시 모아야 한다는 현대인의 과제는 응이 말하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신화의 필요성과도 연관된다고 하겠다.

4. 창조신화와 의식화 과정

깨우침이 일어나는 것의 우주성(Cosmogony Awakening)을 보여주기 위하여 폰 프란츠가 소개한 에스키모의 창조신화 <독수리의 선물(The Eagle's Gift)>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의식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고 있다.⁴⁴⁾ Tulungersaq 혹은 Father Raven이라고 부른 존재는 모든 생명과 인간을 창조한 기원으로서 어둠 속에서 홀로 있다. 그는 raven이 아니고 사람 모습이었으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존재는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죽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극심한 우울에 빠진 개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에스키모의 창조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의 주변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진흙을 만진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고 코, 눈, 입, 팔,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한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흙 위를 기었다. 손으로 위험한 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둠 속에 기어 다니면서 주위를 탐색

42) Cirlot JE(1983) :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Kagan Paul, London, pp187-188.

43) Edinger E(1984) :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ner City Book, Toronto, p19.

44)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8-37.

했다. 폰 프란츠는 기어 다니는 존재들은 무의식의 내용물이 형태화되지 못한 것의 인격화라고 보았다.⁴⁵⁾ 본 논문을 구상하던 2009년 9월에 어둠 속에서 엄청나게 높고 긴 다리를 기어가는 꿈을 꾸어본 일이 있다. 그 다리는 돌로 만들어 젖고 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을만큼 좁았고 끝이 보이지 않게 길었고 그 아래에는 검푸른 물이 구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기어갈 수 밖에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난간도 없는 좁고 높은 다리를 기어서 건넌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어지러워하는 필자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다. 어둠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다리를 기어가야 했던 것은 형태화되어야 할 무의식의 내용물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에스키모의 창조자는 어둠 속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 갑자기 자신이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지게 되는데 손으로 위험한 심연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 흙 속에서 발견한 딱딱한 물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땅에 묻고 나서 다시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깊은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작고 가벼운 새가 그의 손에 내려 앉았다. 중요한 것은 이 참새는 어둠 속에서 그 주변에서 날고 있었으나 어둠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하고 손으로 더듬으며 참새를 만져보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땅에 묻었던 씨앗에서 숲과 풀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씩 조심스럽게 창조해 나가게 된다.⁴⁶⁾

에스키모의 창조신화에서 인상적인 것은 어둠 속에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창조자의 모습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도 현실적으로는 터무니 없고 위험해 보이지만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의 엄청난 힘을 잘 보여주는 듯 하다. 이러한 사실은 혼돈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절망한 나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라 해도 좋을 것이다.

45) 위의 책, pp271-272.

46) 위의 책, pp28-37.

‘알’이 가지는 분석심리학적 의미

1. ‘알’의 확충

‘알’은 가장 총체적이고 완벽한 조합의 살아있는 원상으로서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 자체의 무한한 동력과 발전의 상징이다. ‘알’은 원이 지닌 원만, 충족, 팽배, 발전, 전진, 영원한 동력 등의 상징성에 ‘알’의 생명력이 더해져 그 의미는 더욱 증폭, 강화된다.⁴⁷⁾ 생명의 근원의 의미를 지닌 ‘알’은 새로운 삶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절과 모든 봄을 맞는 축제의 상징이거나 신화에서 세상의 처음 태초의 의미와 신들이나 시조들의 탄생과 연관되는 등 모든 새롭게 시작하는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실로 방대하다.

‘알’의 몽골어 ‘우레’는 씨(種)의 뜻을 가지고 있다. 난알, 쌀알, 사과 알, 밤 알, 호두 알, 눈알, 불알, 조기 알, 연어 알 등을 보면 ‘알’은 실(實), 핵(核), 입(粒), 종(種),란(卵)의 뜻과 알맹이, 알몸 등으로. 생명소, 실속, 정수, 중후, 핵심 등을 상징하고, 부화된다는 ‘알’의 특성으로 부활, 재생, 다산, 번식 등을 상징한다. 한국 민속에서 정월대보름 전날 밤에 닭이 울기를 기다려 우물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바가지로 떠 오며 용알(또는 용란)을 떠 온다고 했고, 이러한 행위가 풍년이 들게 하고, 임신을 못한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⁴⁸⁾에서 비롯되었고, 중국 소수민족의 결혼잔치 음식으로 삶은 달걀을 먹는다는 것에서 풍요와 다산의 모체로서의 ‘알’의 면모가 드러난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의 ‘알’과, 사순절 끝날 때 먹는 달걀, 그리고 유대교 관습에서 세테르(유월절 밤에 열리는 축제)에 나오는 달걀은 약속의 상징이고 성찬식과 관련된 전통을 일러주는 동시에 상을 당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제공하는 음식이었다. 중세 종교 회화에서 원죄없는 잉태의 상징이기도 했다. 또한 타조 ‘알’은 저 혼자서 부화한다고 하여 콧 교회(이집트 그리스도교의 일파)의 예배당이나 모스크에 타조의 ‘알’을 높은 곳에 올려 놓기도 하고 무덤에 묻기도 했다.⁴⁹⁾ 러시아와 스웨덴에서 출토되는 선사시대 무덤에서 점토로 만든 ‘알’들 역시 창조와 부활, 그리고 영생을 의미하고 있음을

47) 김열규(1996) :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p462.

48) 위의 책, p462.

49)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p60.

추정할 수 있다.⁵⁰⁾

또한 우주를 품고 있는 거대한 구형으로 상징되는 ‘우주 알’은, 삶의 원리, 미분화된 전체성과 잠재성, 모든 창조의 싹, 원초적인 모성 정신으로서의 혼돈, 숨어 있는 근원과 존재의 신비,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의 한 시작, 자궁, 원초적인 부모들과 완벽하게 대극합일이 된 상태를 상징한다.⁵¹⁾

2. ‘알’이 출현하는 창조신화들

1) 우주창생의 근원으로서의 ‘알’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형태는 삶의 신비, 생명의 씨앗, 잠재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⁵²⁾ 많은 우주창조 신화에서 ‘알’은 세상의 시작이자 세상을 만드는 원 질료로서 모든 세상이 탄생하게 하는 우주적 원리라는 존엄함을 보유하고 있다.⁵³⁾ 인도의 창조신화의 태초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시작한다. 없음에서 있음이 생겨나서 하나의 큰 ‘알’이 되었다. ‘알’이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은 금, 한 쪽은 은이었다. 금 쪽은 하늘이 되고, 은 쪽은 땅이 되었다. 붉은 부분은 구름이 되고, 마른 부분은 산이 되고, 실오리같은 물질은 강이 되고, 그것의 덩어리는 바다가 되었다. 바다는 해를 낳았고 해가 탄생할 때 기쁨의 함성과 함께 세상의 만물이 생겨났다.⁵⁴⁾ Manu Samhita 15의 우주 기원설은 태초에 신이 그 자신을 ‘황금 알’로 바꾸었다고 한다. ‘알’이 전체 우주와 특히 떠오르는 태양과 동일시되는 경우라 하겠다. ‘황금 알’이 브라만(Brahman)신 자신의 화신으로서 태양처럼 빛을 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신, 모든 세상의 아버지인 브라만이 태어났다. ‘황금알’은 브라만의 배아를 품은 ‘알’인 셈이다. 그는 일 년간 이 ‘알’에서 쉬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단 순히 말을 통해 두 개의 껍질로부터 그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었다. 중간 부분에 그는 공기를 넣었다. 그리고 세상의 여덟 방향, 그리고 물의 연속적 머무름

50) Cirlot JE(1983) :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Kagan Paul, London, p94.

51)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p60.

52) Cirlot JE(1983) :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Kagan Paul, London, p94.

53) Von Franz ML(1974) :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1964 강의), 1974, 1995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1995, p265.

54) 박시인(1994) : 《알타이 신화》, 청노루, pp410-411, The Upanishads, Vol. IV.

을 만들어냈다.⁵⁵⁾

힌두교 창조신화는 태초의 물위의 신성한 새가 낳은 창조의 ‘황금 알’에서 비슈누가 부라마의 형태로 나오면서 두 개로 갈라져 하늘과 땅이 되고, 대륙과 바다, 산들, 행성들, 신들, 악마들, 인간들이 만들어지고⁵⁶⁾ 인도의 드라비다 신화의 경우, 모신 암마바루가 젖의 바다에 3개의 ‘알’을 낳았고 세 창조신인 브라마, 비슈누 그리고 시바가 그 ‘알’에서 나왔다.⁵⁷⁾

한 이집트 우주기원 설은 태초의 덩어리인 물을 Nun이라 불렀고 미래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의 배아인 ‘알’을 함유하고 있는 근원적 정신이 이를 물에 거주하게 하여 언제나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였다. 여덟 가지의 신성한 원칙이 근원적인 정신화된 물의 원리(water principle)로부터 나온 후에, ‘알’을 창조하고 ‘알’에서 태양이 나온다. 창조적인 정신인 이집트의 아툼(Atum)은 질서를 지우고 사교활동을 통해 첫 우주 기원적 집단인 신성한 네 쌍들이 존재하게 한다.⁵⁸⁾ 그들의 창조의 첫 번째 행위는 거대한 ‘알’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알’로부터 태양신인 라(Ra)가 자라나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한다.⁵⁹⁾ 여기서 ‘알’은 우주의 가장 첫 번째 존재가 아니라 창조 행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풍요의 여신 에우뤼노메는 혼돈에서 태어나 하늘과 바다를 가르고 파도 속에서 노닐다가 큰 뱀 오피온에게 겁탈 당했다. 그 뒤에 비둘기로 변신하여 우주 ‘알’을 낳았고 오피온이 이 ‘알’ 주위를 7바퀴 감돌아 써서 부화시킨 것이 우주이다.

핀란드의 창조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오리, 혹은 공기의 여신 일마타(Il-

55)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225.

56)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p60.

57)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58) Nun과 Nunet는 창조적인 일과 관련된 사건 후에 보인다 : He와 Hehet은 창조적 영속성과 pneuma의 eros principle이고 우주의 어둠을 체현한 자들이다. Nenu와 Nenuet은 움직이지 않음, 고요를 체현한 자들로서 모든 것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다. 그들의 첫 번째 행위는 He와 Hehet의 손에 들릴 거대한 ‘알’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위의 책, p227.

59)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27-228.

matar)⁶⁰⁾의 무릎에 내려와 앉은 한 오리가 낳은 ‘알’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신화가 있다.⁶¹⁾ 그리고 ‘알’의 하반부가 변형되어 땅이 되었고 상반부가 변형되어 하늘이 되었고, ‘알’의 노른자위에서 태양이, 흰자위에서 달이 만들어져 빛이 생기게 되었고, 밝은 색상의 부분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어두운 부스르기들은 하늘에 구름이 되었다고 한다. 서기 240~600년까지의 Sassanid 왕조 시대에 기록된 한 페르시아 문헌에서도 하늘, 땅, 그리고 물 그리고 하늘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새의 ‘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였다.⁶²⁾

중국 삼국시대 서정(徐整)이 지은 <삼오역기(三五歷記)>는 남방민족의 반호 혹은 반고의 전설을 수집한 것으로 중화민족의 시조를 만들게 된 것과 관련되는 창조신화로서 거대한 ‘알’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던 시절, 우주의 모습은 다만 어두운 한 덩어리의 혼돈으로 큰 ‘알’과 같은 것 속에서 반고가 잉태되어 곧하게 잠자며 1만 8천년을 지냈다. 어느 날 그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흐릿한 어둠뿐이었다. 그는 고민하다가 어디서인지 큰 도끼를 가지고 와서 눈앞의 어두운 혼돈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큰 ‘알’은 깨어지게 되었고 그 속에 있던 가벼운 기운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한 기운은 땅이 되었다. ‘알’의 형태로 1만 8천년을 지냈다는 것과 도끼질로 한 번에 갈라지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중국인 특유의 만리장성을 쌓는 지구력이나 해외에서도 강한 문화적인 테두리를 만들고 그 속에 머물다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그들의 특성이 연상된다.

2) 시조 신들의 모체로서의 ‘알’

‘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민족의 신화, 전설에서 생명의 원천이자 민족의 영웅 및 신들의 출생처로 간주되어왔다. ‘알’은 또한 신들의 출생처로서 용의 보호를 받으며 금이나 은으로 된 마법의 ‘알’에서 신과 영웅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집트와 인도 극동지방 오세아니아에 이르는 수많은 창조 신화에서 세

60) Ilmatar는 핀란드어에서 공기를 의미하는 ‘ilma’와 여성spirit을 의미하는 ‘tar’를 합한 것으로 여성적인 공기 정령(female air spirit)이라 하겠다. Kalevala 그녀는 여성적인 자연(female spirit of nature)을 의미하는 ‘Luonnotar’라고 소개되기도 한다(Finnish *luonto*, “nature”). [2].

61) 박시인(1994) : 《알타이 신화》, 청노루, p410.

62)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226.

상 창조와 첫 인간 탄생의 최초 과정에서 ‘우주 알’로 등장하는데 뱀이 ‘알’을 잉태하기도 하지만 주로 거대한 새가 원초적 바다에 ‘알’을 낳은 경우가 더 많다. 많은 창조신화에서 ‘알’이 우주창생의 원 질료로서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전체의 포괄자인 동시에 신이나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모체를 상징하고 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종족 최초의 샤먼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물어온 ‘알’에서 탄생했다고 하고, 서유기에 나오는 조화 무쌍한 손오공(孫悟空)은 바람이 부화한 ‘알’에서 깨어난 원숭이이다.⁶³⁾ 그리스 신화의 네메시스는 집요한 제우스신의 구애를 피하여 백조가 되었는데 그 ‘알’에서 트로이의 헬렌이 태어났고 다른 문헌에서는 달이 떨어트린 ‘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⁶⁴⁾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동침한 뒤 낳은 ‘알’을 낳았고 같은 날밤 자신의 남편과도 동침해 두 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하나에서는 쌍둥이인 폴리데우케스와 헬렌, 그리고 다른 하나에서는 카스토르와 클리템테스트라가 나왔다. 이와 같은 난생의 모티브는 S. Thompson(1955~1958)의 모티브 인덱스의 T. 542에 해당하며 고대 그리스 밀교부터 이집트, 중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다양한 지역의 신화체계에 등장한다.⁶⁵⁾

한국 설화에서 ‘알’은 시조들의 탄생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신라, 고구려, 가락국의 시조는 ‘알’에서 태어났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은 하백의 딸 유화가 하느님(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관계한 후에 낳은 커다란 ‘알’에서 태어났다. 또는 북이(北夷)에 시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달걀 같은 것을 삼키고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가 부여(夫餘)라는 나라의 시조 동명(東明)이다.⁶⁶⁾ 신라를 창건한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자줏빛으로 비추어진 ‘알’ 또는 붉은 ‘알’에서⁶⁷⁾ 탈해 왕은 용성국의 왕비가 7년간 기도한 끝에 낳은 ‘알’에서, 수로왕은 구지봉에 내려온 황금알에서 태어났다.⁶⁸⁾ 또는 하늘에서 붉은 천으로 싼 금괴 속에 있던 여섯 개의 황금‘알’에서 동자가 탄생하였다. 이들은 십여일 만에 키가 구 척이 되는 등 태어날 때부터 범상하여 가야의 여섯 임금에 되었다.⁶⁹⁾ 서(徐)나라의 궁녀가 ‘알’을 낳아

63) 한국문화상징평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p461.

64) 위의 책, p462.

65) 이도희, 이부영(1993) : 심리학적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心性研究, 12, p4.

66) 박시인(1994) : 《알타이 신화》, 청노루.

67) 일연, pp69-71, 최상수, 1958, pp304-306, 재인용. 12.

68) 한국문화상징평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2》, 두산동아, 서울, p561.

69) 일연, pp182-184, 최상수, 1958, 재인용, p11.

물가에 버린 것을 개가 물어다가 주인에게 가져다 주어서 키우게 되었는데 살은 있었으나 뼈가 없는 아기가 태어나서 유순하고 어진 왕이 되었다.⁷⁰⁾ 알타이 시조 신화에 商 혹은殷나라의 선조인 설(契)의 어머니가 물가로 목욕 갔다가 검은 새(玄鳥)의 ‘알’을 발견하고 그것을 삼켰다가 임신하여 설을 낳았다.⁷¹⁾ 진 나라의 시조 대업(大業)의 경우도 검은 새가 떨어트린 ‘알’을 삼키고 낳은 아들이다. 북태평양의 인디언의 설화에는 ‘연어 알’에서 아이가 탄생하여 죽음, 재생의 과정을 거쳐 천상계로 상승하고 다시 지상으로 하강하는 이야기가 있다.⁷²⁾

3. ‘알’의 상징성 : 출현-품음-분리

1) ‘알 출현’의 심리학적 의미

바위가 ‘알’로 변한 환자의 환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용은 ‘알’은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생명의 싹으로서 그것은 창조론적 상징일 뿐 아니라 철학적 상징이라고 하였다. “태초의 의미를 가진 오르페우스 비의의 ‘알’이 창조론적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철학적 상징은 중세 자연철학의 현자의 ‘알’, 즉 안트로포스, 영적이며 원만한 내적 인간, 중국 연금술의 진인(真人)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⁷³⁾

‘알’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싹이자 우주발생의 근원을 의미하는 상징이고 또한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내적으로 완전한 인간의 출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의 출현의 심리학적 의미는 정신적인 전체성에서 자아의식이 떠오르기 전, 즉 전의식적 전체성의 모티브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1) 창조론적/생명의 싹으로서의 ‘알’

많은 창조신화가 우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알’로 시작한다. ‘알’은 생명의 원

70) 박시인(1994) : 《알타이 신화》, 청노루, pp104-105.

71) 위의 책, p85.

72) Thompson(1946) :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London, pp405-406.

73) 이러한 개념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이 오직 따뜻함이 더해지는 것만이 필요한 ‘알’이나 나무의 싹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토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entelechy* 개념의 저변에 깔려있는 배아에 대한 원형적인 관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Von Franz ML(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29-230.

천으로 우주의 근원이며 신의 출생 처로서 자기의 상징이다.⁷⁴⁾ ‘알’의 껍질은 공간에 떠있는 세계의 뼈대이고, 그 안에 있는 왕성한 생식력은 자연계의 역동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태초의 ‘알’은 소우주의 상징이다. 이집트 창조신화에서 ‘알’은 영원한 씨이자 세상의 시작이 되는 태양신이 출현했고 이러한 세계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알’은 어디에나 있는 공기와 같다.

응은 공기는 영(정신, 혹은 심혼 Geist)이고 세계의 어머니는 세계의 혼(anima mundi)으로서 이러한 상은 심리학적으로 항상 자기를 암시하는 사위일체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가장 외적인 것과 가장 내적인 것,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하며, 세계를 감싸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심장 안에 엄지만하게 작은 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도의 아트만(Atman) 사상과 일치한다고 했다.⁷⁵⁾

그리스 신화의 탄생에 앞선 기원 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로 추정되는 오르페우스(Orpheus) 전통⁷⁶⁾에서 ‘알’은 세계의 상징이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시간의 원리(time principle)라는 창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신인 Aion과 유사하다. 오르페우스 비의에서 ‘알’은 삶의 신비, 창조, 부활, 우로보로스의 의미를 가지며 만물을 생성하며 만물이 들어있는 우주이자 죽은 자의 정화와 제물로 사용했고, 뱀이 감고 있는 ‘알’은 창조적 지혜로 둘러싸인 우주의 영원한 씨를 의미한다.⁷⁷⁾

그리스 신화의 탄생과 관련된다고 보는 오르페우스 우주 기원설을 토대로 만든 Aristophanes의 희곡 <The Birds>에서 혼돈의 밤과 어두운 심연과 Tartarus가 나온다. 땅과 공기와 하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깊은 심연인 Erebos에서 어둠을 날개를 가진 밤인 바람의 ‘알’(wind egg)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에로스(Eros) 신이 나타나는데, 그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등에 금으로 된 날개를 갖고 있는 자이다.⁷⁸⁾

74)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225.

75) 용 CG(2006) : 용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308.

76) 오르페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음악의 신이며, 뛰어난 노래와 하프 연주로 모든 자연의 정령과 악령을 감동시키는 비극적 영웅으로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Dionysus Zagreus)를 숭앙하는 비의(秘儀)의 창시자로 전해진다.

77)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p60.

78)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27-228.

오르페우스 찬가(Orphic Hymn)는 바람(pneuma)에 의하여 수태된 검은 알개를 가진 새가 은 ‘알’(silver egg)을 낳았고 이 ‘알’ 속에는 창공과 대지 모두가 있고 그래서 이 ‘알’은 우주(cosmos)자체로서 소우주라고 불렀고 이것은 연금술사들이 말하는 ‘현자의 알’(Philosophical egg)과 다르지 않다.

(2) 시바점(Shiva bindu)으로서의 ‘알’

세계의 근원(배아)의 상징으로서의 ‘알’은 인도의 탄트라 철학에서 중요한 상징인 시바 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시바 점은 ‘알’의 주위를 뱀이 감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는 힌두교에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지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구를 감고 있는 뱀은 그 창조적인 힘의 확대이며, 생성의 어머니, 구상적 세계를 형성하는 배아라 하겠다. 시바 점과 같은 개념으로서 고대인도의 서사시 리그베다(10, 21)의 우주기원을 노래하는 시에 나타나는 신이 품는 ‘알’ 또는 짝은 히라니야가르바(Hiranyagarbha), 즉 황금 태(胎), 또는 황금의 알이 있는데 그것은 용의 글들에서 항상 자기(Self)의 상징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개념이다.⁷⁹⁾ <리그 베다>에 의하면 ‘황금 태’는 만물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태초의 주인이자 천지를 포괄하는 자이다.⁸⁰⁾

‘알’의 출현은 흔히 갑작스런 계몽(illumination)의 원 질료 관념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의식으로 진보가 가능해지고 그것을 통해 전 우주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신화적으로 빛과 일출(Phanes)의 출현, 그리고 빛나는 신의 모티브와 연관이 있다. 용은 황금의 공은 빛나는 천체와도 같은데, 브라만교 경전의 태양예찬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또한 태양이기도 하고 태양을 또한 황금의 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황금태는 최고의 ‘자기’, 즉 모든 개별 심혼들의 집단적 ‘응집체’로서 브라만의 체(體)이며 집단적인 심혼을 대변한다고 말한다.⁸¹⁾ 인간이 의식의 진정한 진보나 의식의 더 높은 단계로의 혁명적인 도약을 할 때마다 관계가 변

79) “태고의 배아를 소중히 품었다. 그 안에서 신들이 그들을 모두 함께 보았다. 배아는 모든 신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폰 프란츠는 신이 세상을 현재의 형태로 생산한 배아 혹은 ‘알’을 품는 것에 관한 주제에서 Franz Lukas의 논문 “우주 기원적 표상表象이자 관념으로서의 ‘알’(Das Ei als kosmogonische Vorstellung)”을 인용하였다.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24-225.

80) Dowson JA(1968) : *A Classical Dictionary of Hindu Mythology*,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p121.

81)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p76.

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견해가 변하고 그 자신의 상황이 변한다. 그것은 세계의 완전한 재탄생이라 할 수 있고, 황금알 모티브는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에 의하여 배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여래장(如來藏)으로서의 ‘알’

‘현자의 알’이나 중국연금술의 진인(真人)과 같은 개념은 불교 보성론의 여래장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래장(*tathāgata-garbha*)은 불성(佛性, *buddha-dhātu*)을 의미한다. ‘여래장사상’이란 비록 중생이 번뇌에 속박되어 있으나 여래장 즉 부처의 태(胎), 종자(種子), 가능성(可能性)을 본래 갖추고 있어서 ‘일체중생은 여래장’이라는 사상이다. 여래장으로 알려진 불교의 제 3승이 만다라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성종에서는 우주의 본질과 드러난 현상과 일치하는 조화가 가장 잘 나타내는 자궁으로서의 ‘알’ 가르바(*garbha*)라고 하였고 생명이 생성되는 장소와 같은 곳이다.⁸²⁾ 여래장은 진여(眞如)라고도 표현된다. 진여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이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궁극적인 진실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유일한 용어이다. 진여와 여래장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지닌 참된 상태이며, 부처의 원천이며, 깨달음의 근거이다.

무명은 무의식성이고 근본무명은 집단무의식으로서 여래장과 근본무명과의 관계를 자기와 집단무의식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이 관계는 자기가 무의식 현상 속에 무의식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⁸³⁾ ‘알’의 출현의 심리학적 의미는 근본무명으로 가려져 있던 진여가 드러나는 가능성, 즉 의식성의 씨앗(배아)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4) 고뇌를 동반하는 ‘알 출현’

창조신화에서 태초의 혼돈에서 ‘알’이 등장하듯이 한 개인이 고뇌함을 통하여 알이 출현함을 알 수 있다. 융의 <붉은 책>에서 과거사를 대변하는 거인이 ‘알’로 변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신은 구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 책의 편집자인 Shamdasani는 융의 회고록에서 융이 야페에게 한 말 “거인을 ‘알’로 만들었다.”⁸⁴⁾의 내용을 성 크리스토퍼의 전설과 연관하는 주석

82) 정호영(1993) : 여래장사상, 대원사.

83) 이죽내, 이현준(1994) : 元曉가 본 아래아식의 分析心理學的 考察, 神經精神醫學, 33(2) : p349.

84) Jaffe A(1961) : *Memories, Dreams and Reflection*, Random House Inc, New York, p148.

으로 달았다.⁸⁵⁾ 전설에 의하면 3세기에 순교 당한 성 크리스토퍼가 어떤 수도사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예수를 도울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위험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도우라 했다. 어느 날 한 작은 아이가 도움을 청했고, 그 아이가 어느 누구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⁸⁶⁾ <붉은 책>의 편집자는 용이 거인을 집으로 데려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운반했던 성 크리스토퍼가 “예수를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들이 되어서 그의 짐과 멍에가 달콤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유 하였다.⁸⁷⁾ 알의 출현의 분석심리학적인 의미는 세상의 근원이자 일종의 싹과 같은 개념을 지닌다. 알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것/무의식에서 알아지게 되는 것/의식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가능성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5) 연금술의 관점으로 본 알의 출현의 의미

연금술 작업(*opus*)은 원질료(*prima materia*), 혹은 알 수 없는 혼란의 덩어리(*messa confusa*)에 갇혀있고 숨어있는 영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련하여 추출해 내는 과정이다. 연금술적인 ‘알’은 위대한 작업으로 소모될 밀봉된 헤르메스의 용기(*hermetic vase*)⁸⁸⁾이자 세계 혼을 내포하고 있는 원질료(*prima materia*)이다. 그것은 둥근 냄비로 상징되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된 혼으로서 독수리가 나오며, 이 해방된 녀는 또한 원초적 인간, 육체에 사로잡혀있는 안트로포스(*Anthropos*)라고 융은 말한다.⁸⁹⁾

‘알’은 연금술사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물질, 메르큐리우스(*Mercurius*)로서 글자 그대로 수은(*Mercury*)을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물질 속에 숨겨진 또는 붙잡혀 있는 세계창조의 혼(*Geist*)이라 할 수 있다. 이 혼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대극합일의 전체정신, 즉 자기이다. 원질료, 카오스, 혼돈은 자기의 얼굴이지만 아직 의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화 작업이 필

85) Jung CG(edi. Shamdasani, 2009) : *The Red Book*, W.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p283, 주, 114.

86) 위의 책, p283, 주. 118.

87) 예수는 “나의 멍에는 달고 그 부담은 빛이다”(마태복음서, 11 : 30). 위의 책, p283.

88) 위의 책, p60.

89) Jung CG(1944)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278-279.

요하다. 물질의 변화과정으로 설명되는 연금술 작업은 상징적으로 무의식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기를 의식으로 드러내는 자기실현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창조신화적으로 볼때 태초의 혼돈에서 천지개벽을 통해 빛과 세상이 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불안 및 우울 증상을 가진 환자가 연금술의 ‘알’ 같은 치료적인 그릇에 담겨 동일시했던 것로부터 분리, 즉 투사를 철회하여 증상이 사라지고 현실에서 기능하는 개인이 되는 것으로 비견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우울(신경증)환자들의 경험은 무의식상태를 의미하는 혼돈이나 어둠이라고 볼 수 있고, ‘알’이 출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세계 알’이자 새로운 태도의 자아를 출현하게 하는 씨앗과 같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일단 ‘알’이 출현하면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집중, 즉 품음(타파스)로 이어지고 지성의 탄생 또는 새로운 자아의 태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과정에서 알이 출현한 사례들의 경우, 모두 처해 있는 상황과 이슈는 다르지만 우울, 죽음, 고뇌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혼돈의 심연에서 창조론적인 배아와 같은 ‘알’이 출현하게 되면서 문제적인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⁹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앗과 같은 ‘알’이 바로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파스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듯 하다.

2) ‘알 품음’(Brooding)의 심리학적 의미

‘품음’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알을 덥혀주는 일종의 출생을 위한 보육과정의 의미와, 어떤 문제를 숙고함, 심각 또는 침울하게 생각하며 관조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품음은 새로운 생명이나 세계관을 얻기 위하여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내면에 품고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즉 모든 정신적인 에너지를 집중하여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내면에 머물게 하고 명상(meditating)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 김진숙(2012) :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수료논문.

(1) 타파스/내향화

‘알’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저 배아로서 그것을 품어서 데워야 하는 집중(타파스)을 필요로 한다.⁹¹⁾ 폰 프란츠는 꿈에 ‘알’이 나왔을 때 그것이 자기 성찰을 위한 주의 집중 즉 ‘알’을 따뜻하게 덥히는 타파스(*tapas*)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순간이며, ‘알’은 곧 ‘알을 품음(*brooding*)’으로 연결되며 지성/태양의 탄생 부화로 발전하게 된다고 했다.⁹²⁾

타파스는 어떤 것에 대해 맘 흘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요가 명상에서 타파스는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되돌려 체온 조절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수행방법의 하나이다. 심리학적으로 타파스는 당신 자신의 내부에 온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우리가 자신에게 리비도를 주는 것과 같다.⁹³⁾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에 의하면 타파스(내향화)를 통해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수태하게 되고, 영감을 받으며, 다시 생산되고 다시 태어난다.

리그베다(10, 121)에 의하면 만물의 원초적 창조자는 프라자파(Prajapāti)이다. 그는 ‘알’을 품어 숙성시키는 타파스의 수련을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도이센(Deussen)은 타파스가 더운 나라 인도에서 노고와 고통의 상징이 되어 차츰 자기 고행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부화, 자기 고행, 그리고 내향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도의 철학은 내향화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⁹⁴⁾ 융은 인도철학에서 스스로 잉태하고 탄생된 ‘알’이 창조적이며 정신적 활동의 상인 히라니야가르바와 프라자파티가 가지는 의미는 오직 내향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라 하였다.⁹⁵⁾

(2) 여성적인 것의 증가

그노시스 학파 저자인 Valentinus의 문헌에 태초에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self father*)인 Autopater가 있었다. 그는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자신 안에 살고 있던 여성적 힘이 자신의 위대

91)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230.

92) 위의 책, p206.

93) 위의 책, p205.

94) Jung CG(2006) : 융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p349-350.

95) 위의 책, p351.

함인 엔노이아(Ennoia)와 융합하려는 욕망이 일어났고 그 결과 Aletheia(the truth, 여성적 존재)와 Anthropos(man 남성적 존재)를 낳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남성-여성 존재 전체 여러 그룹들을 창조해냈다.⁹⁶⁾

고대 그리스에서 사고는 로고스(Logos)라는 단어로 명명되었는데 그들은 사고(로고스)가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내적 인식인 엔노이아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⁹⁷⁾ 폰 프란츠는 엔노이아의 개념을 첫 사고에 대한 조용한 인식으로서 반의식이고 반 무의식인 역치현상이라고 하면서 엔노이아 아니마(Ennoia, Anima)라고 하는 여성적 존재로 적절하게 인격화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 안에서 아니마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다.

엔노이아는 아직 단어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서 말해질 수 없는 생각을 의미하고 일종의 전(前)사고(antethought)이자 언어화되지 않는 침묵으로서 ‘알 품음’이라는 숙성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엔노이아가 오토파터를 일깨운다는 사실이 내향적인 자세와 의식성의 탄생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알’을 품거나 덮힌다는 것은 엔노이아라는 여성적인 무언을 가지고 있는 것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 품는다는 것은 사고의 내용을 단어로 외향화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보존되어 명상하거나 품는 것이다. ‘알’을 품는다는 것은 생각을 품은 명상의 상태로서 갑자기 조용해지고 진실되고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뒤돌아보며 심사숙고하고” 심리적 진실의 근본을 진지하게 탐구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중부(中孚), 내적 진실

중국의 역서인 주역에서 괘 61인 중부(中孚)가 ‘알’을 품는 이미지라는 점과 그 의미가 “내적 진실”이라는 점이 중요한 듯 하다. 이 괘는 6효(爻) 중에 중간의 두 효(爻)가 비어있는 형상으로서 새의 발 아래에 있는 ‘알’, 즉 새가 ‘알’을 품기 위해 ‘알’ 위에 앉는 것과 관련된다.⁹⁸⁾

폰 프란츠는 자기반조, 타파스, 삶의 비밀에 대한 탐구로 새로운 인격의 탄생을 희구하는 마음으로서 주역의 61괘가 가지는 내적 진실로서의 ‘알’의 의미를

96)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199-202.

97) 위의 책, p201.

98) Wilhelm(trans) :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trans German to English by Bay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235.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내적 진실을 깨달음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심지어 물고기와 돼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반조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인격의 배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과 무의식적 충동들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진실의 배아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발견된다.⁹⁹⁾

‘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 즉, 내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으로만 지성과 의식성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자가 보육(self-incubation), 금욕(self-castration)과 내향은 서로 연관되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 속으로의 심화(深化, 내향)는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금욕이다. 브라만 철학에서는 이 행위로서 세계가 생겨난다. 신비가들에게는 이 행위로서 개체의 신생과 정신적인 재생이 생기며 그 개체는 새로운 정신적 세계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¹⁰⁰⁾

초등학교 역사시간에 한국의 정신문화를 대표한다고 봐도 좋을 팔만대장경이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쟁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묘한 느낌으로 다가와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살아온 듯 하다. 팔만대장경 제작은 무력(武力)으로 맞서기보다 원력(願力), 즉 내향으로 스스로의 정신세계에 온기를 주는 타파스로 맞섰던 선조들의 내적 진실에 집중하는 진중함에서 현대인들이 넘볼 수 없는 지혜로움을 보게 된다. 고려도 몽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빛나는 정신문화로 남아있는 팔만대장경은 이 내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4) 원효의 지관(止觀)

지관은 불가의 본질적 이해 양식인 동시에 중요한 수도방법이다. 止(samatha)는 정지한다는 말이고 觀은 관조한다는 의미로서 지관(止觀)은 “정적으로 마음을 거두어 망념을 쉬고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고 지혜를 내어 관조(觀照)하여 진여현실(眞如現實)에 계합하는 것”을 말한다.¹⁰¹⁾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단속한다는 점에서 타파스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99)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231-232.

100) Jung CG(1924) : *Symbol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80-381.

101) 이죽내, 김현준(1993) : 元曉가 본 止觀에 대한 分析心理學的 考察, 심성연구, 8(1,2) : p41.

원효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지관(止觀)이란 止의 觀으로서 나타나는 정신의 본질이 정신현상을 분별하되 그 정신현상의 본질 혹은 본질적 의미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고, 止와 觀의 두 가지 수행이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했다.¹⁰²⁾ 원효가 제시한 止와 觀의 방법은 매우 세부화되어 있다. 특히 止의 수행과정인 아홉 가지의 마음자리인 구종심주(九種心柱)는 마음을 한곳에 모아 심일경성(心一境性) 혹은 진여삼매를 이루는 단계로서 아홉째 단계까지는 힘을 써서 수행하는 유위(有爲)의 단계라면 마지막 아홉째 단계인 마지막 단계 등지(等持)는 무위의 단계로서 힘을 쓰지 않아도 진여삼매를 이루어 자연히 道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¹⁰³⁾ 이죽내는 원효의 지관사상을 분석심리학적인 고찰에서 ‘마음을 한곳에 모음’ 즉 일심여래장에 집중하는 것은 대상으로 투사하는 마음을 거두어 들어 의식화하여 ‘중심이 되는 한 곳’ 즉 ‘자기’에게 되돌아가는 중심화 과정으로 보았고, 자아의 집착성을 벗어나야 ‘자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아와 자기, 의식과 무의식, 주관과 객관 등의 대극이 합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⁰⁴⁾

구종심주의 자세는 ‘알’이 부화하기까지 둥우리에서 떠나지 않는 암탉의 자세와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용의 <붉은 책>에 출현하는 ‘알’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쪼개면서 깨달음에 얻게 되는 전 과정도 구종심주로 앞의 빛의 밝음으로 드러나는 지혜광명의 경험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5) ‘밤의 항해’로서의 ‘알 품음’

프로베니우스가 말하는 ‘밤의 항해’는 태양(영웅)이 작은 상자나 껍에 밀폐된 상태에서 어딘가로 떠내려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때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¹⁰⁵⁾ ‘알 품음’의 경험은 태양의 점을 가지고 있는 알이 여성성(자궁)을 상징하는 둥우리에서 머문다는 점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새로운 세계관을

102) 위의 논문, p45.

103) 위의 논문, pp44-45.

104) 개인적인 무의식이 의식화의 대상이라면, 집단무의식의 내용은 관조와 명상의 대상이고, 觀照와 冥想은 집단무의식의 내용인 原型의 빛, 즉 자연의 빛(lumen naturae)을 드러내는 것이며 의식화가 무엇을 의식하는 소유의 개념이라면, 관조와 명상은 단순히 밝아지는, 존재의 개념이라고 했다. 이죽내, 김현준(1995) : 元曉의 心性論에 관한 分析心理學的研究, 神經精神醫學, 34(2) : p354.

105) 용 CG(2006) : 용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p78-79.

가진 존재로 탄생한 요나의 경험과, 대홍수를 피해 방주를 타고 표류한 노아의 밤의 항해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류의 신화들이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에 대하여 융은 “자궁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리움”이라고 하였다.¹⁰⁶⁾ 영웅의 여로의 목적 의미는 어머니(무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융은 영적으로 탄생한 자란 육체적인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상징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였다.¹⁰⁷⁾

‘알 품음’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고대인들이 치유를 받기 위하여 어두운 동굴이나 구멍 속에 들어가 치유적인 꿈을 꿀 때까지 머무는 것과 관련할 수 있다. 오랜 품음을 통하여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들도 오랜 머무리라는 부화 기간을 통하여 치유된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¹⁰⁸⁾

(6) 연금술적 관점에서 본 ‘알 품음’

연금술에서는 원질료를 세척하고 증류하고 정화하는 전과정이 밀폐된 연금술의 용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증류기 안에 있는 것이 도망가지 않도록 안으로 돌리는 철저한 내향화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온갖 갈등을 자신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알’을 품는 타파스와 비견할 수 있다.

연금술에서 우주적인 ‘알’에 들어있는 노란자는 우리 심장 안의 중심에 있는 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점이고 융은 이를 ‘태양-점(sun-point)’이라 하였다. 이 점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창조적인 “불의 점 fire-point”으로서 황금의 싹이라 할 수 있는데 암탉의 품어주는 행동, 즉 우리의 현신적인 관심으로 실현 가능하다.¹⁰⁹⁾

암탉이 ‘알’을 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등우리에서 보낸다. 하루에 한번 정도 등우리에서 내려와 몸을 털고 급하게 볼 일을 보고 서둘러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알’이 식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신적인 암탉의 내향적인 태도가 ‘알’을 부화시키는 것에 요구 된다면 사고(thought)의 탄생, 즉 의식성의 탄생에

106) 위의 책, p80.

107) 위의 책, p81.

108) Rosenberg Ami(2010) : *The Book of Symbols : Reflections of Archetypal Images*, Taschen, Germany, p14.

109) C.W. 14 : 41, Rosenberg, Ami(2010) : *The Book of Symbols : Reflections of Archetypal Images*, Taschen, Germany, p14, 재인용.

도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리비도의 집중은 자기-반조(反照)의 행위로서 ‘알’을 품어야 분화가 되듯이 리비도가 한 점에 집중시키는 타파스/내향이 되어야 의식성(태양)이 탄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형태의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최근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인 <Angry Bird>는 알을 돼지들에게 뺏긴 어미 새가 알을 되 찾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번번히 실패하는 모습에서 알을 품지 못하는 것, 즉 스스로를 품어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관련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3) ‘알 분리’의 심리학적 의미

창조신화는 우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알’로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두 개로 분리된다. 창조론적인 알이 분리가 되고 새가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고, 철학적인 알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의 도래라고 볼 수 있다.

융의 <붉은 책>에 나타나는 과거사, 병든 거인을 알로 만들고 그것을 품음(승배)하고 쪼개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 융의 <붉은 책>에서 ‘알’을 쪼개는 대목의 요약이다.¹¹⁰⁾ 제3일 저녁에 나는 무릎을 양탄자 위에 꿇고 조심스럽게 ‘알’을 열었다. 연기 같은 것이 솟아났고 갑자기 완전하게 치유된 거인 Izdubar이 내 앞에서 있다. 그의 상처가 흔적 없이 깨끗해 졌고 그는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듯 했다. 내가 ‘알’을 열었고 신은 ‘알’에서 떠났다. 그는 치유되었고 완전하게 치유된 거인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자 막강한 이를 나의 손안에 잡게 되었고, 그는 태양자체였고 해가 솟아나는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 역시 마치 태양같이 솟아나기를 원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저 강력하고 아름답고 낙원 같고 그리고 초인간 적인 것이 나의 모성적인 자궁으로부터 새어 나왔고, 빛나는 황금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¹¹¹⁾ 명예를 따라 살았던 융의 허망한 과거사를 대변하던 병들었던 거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빛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110) Jung CG(edi. Shamdasani 2009) : *The Red Book*,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p286.

111) 위의 책 p286, 주 287.

의식성의 획득과 연관할 수 있다.

〈비전 세미나〉에 소개되는 융의 여성사례의 경우도 극한 고통을 통해서 환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압도해왔던 과거사를 의미하는 거인이 어느 순간 ‘알’이 되고 난 후 그것을 여는 대목이다.

나는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열어보라.”라고 하니 ‘알’이 열렸고 그 속에서 선사시대의 검은 두상의 조형물이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 내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여인이여 나에게 키스를 해주오!”라고 했고, 나를 불태울 수 없다고 거절하자 다시 나에게 키스해달라고 요구했고 키스 한 후 나는 불이 나를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¹¹²⁾

이 여성환자의 비전을 통하여 융은, 우리는 무엇보다 ‘알’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근원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과거라고 말하기보다는 거인 속에 숨겨져 있던 ‘알’로서의 과거에 관한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녀가 ‘알’이 오랜 세월의 먼지를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알’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 즉 오래된 과거사를 의미하는 ‘알’(배아)이며, 거인이 사라지면서 ‘알’이 출현하고 그 속에 검은 두상이 있다는 것은 마치 양(陽)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음(陰), 또는 ‘음 속의 양’이 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¹¹³⁾

‘알의 분리’는 창조신화의 천지분리(개벽)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알’은 미분화된 원시정신의 특징인 신비의 분유(participation mystique)로서 분리가 된다는 것의 심리학적 의미는 심리적인 일치상태(identity)에서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대상)가 분리된다는 것이다. 분리과정은 신비적인 분유상태의 미성숙한 자아가 동일시해 오던 것을 포기하면 일어나는 것으로 심리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의식성이 증대되기 위하여 주체는 객체로부터 반복해서 분리되어야 한다.¹¹⁴⁾

112) Jung CG(1930-1934) : *The Vision Seminars I. II.*, Spring Publications, Zurich, Switzerland, p128.

113) 융의 사례에서 ‘알’이 출현하고 ‘알’을 돌봄으로써 부화가 되는 과정이 중국천지개벽신화에 나타나는 태초의 혼돈에서 태음과 태양이 갈라지는 것과 비견할 수 있다. 전인초, 김선자(옮김, 1998) : 중국신화전설 1(회남자, 역) 개벽편, 민음사, p144.

114) Edinger E(1984) :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ner City Book, Toronto, p36.

(1) 연금술 적 관점에서 본 알의 분리/새(정신)

천지를 분리시키는 조물주의 첫 번째 창조 행위는 연금술의 문헌에서 ‘철학자의 알을 자름’이라는 표장(標章, emblem)과 연관된다. ‘알’을 취하고 불 같은 검은색으로 그것을 강하게 내리치라고 시작하는 Atalanta Fugiens의 경구(警句, epigram) 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보다 더 장엄한 한 새가 있다. 당신의 유일한 관심은 그 새의 ‘알’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알’의 흰자위가 황금의 노른자위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불카누스(Vulcanus, 로마 신화의 불과 대장장이 신)과 마르스(Mars, 로마 신화의 군대의 신으로 그리스의 Ares에 해당)를 함께 일하게 하는 관습과 같이 불 같은 검은색으로 조심스럽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 ‘알’ 안에서 부화한 새는 철과 불 모두 정복하게 될 것이다.¹¹⁵⁾

고대 이집트 <죽음의 서>에 이르기를 “나는 고귀한 매(즉 태양신)이며, 그의 ‘알’에서 나온 자이다.” 더 나아가 “나는 눈Nun(혼돈스러운 태초 근원의 물)의 창조자, 지하계에 그의 자리를 취한 자이다. 나의 보금자리는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의 ‘알’은 깨지지 않는다.”¹¹⁶⁾

알의 부화는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새가 알에서 솟아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연금술에서 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세계 혼(world-soul)을 함유하고 있는 원질로라는 것에 있다. 둥근 용기(vessel)로 상징되는 알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인 독수리와 봉황이 솟아 오른다.”¹¹⁷⁾

<붉은 책>에 나타나는 ‘알’을 쪼개는 장면은 초인간 적인 것(새)이 자궁(알)에서 나와서 해가 솟아나는 동쪽을 향한다는 것에서 연금술의 상승작업(sublimatio)과 유사한데가 있다. 연금술사들에 있어서 상승 작업은 연금술 용기의 아래 부분의 물질로부터 위로 날아오르는 새를 보게 되는 상징적 이미지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 연금술에서 용기는 대우주와 동일시되었고 아래 부분은 지구, 윗

115) Maier(1618) : *Atlanta Fugiens : The Magnum Opus Edition Series # 22*, edited by Godwin, Joscelyn, 1987, emblem 8.

116) 위의 책, emblem 8 해설.

117) Jung CG(1968)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nd ed. 1970, 7th printing, 1989, p202.

부분은 하늘이었다. 상승은 지구를 떠나서 하늘로 이동하는 것이다.¹¹⁸⁾

용은 “상승작업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정신(spirit)의 중재를 통해 어떤 썩어 둔 아나고, 빛나는 하얀 영혼[*anima candida*]이 spirit와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이것은 확연한 ‘철학자의 돌’의 출현”¹¹⁹⁾이라고 하였다. 이 “하얀 영혼”은 종종 태워진 물질로부터 놓여나는 한 마리의 하얀 새로 표현된다.

많은 창조신화에서 새가 세상창조에 관여하고 있다. 에스키모 창조설화의 까마귀와 참새, 아이누 창조신화의 부엉이가 한 예가 된다. 새는 하늘과 땅을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새는 신의 전령사로서 여겨져 왔다. 고대에는 상서로운 일들이 새의 행동을 관찰 함으로서 예측되었던 것과, 정신병의 환자들이 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새들이 자신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에스키모의 창조자가 어둠 속에서 항상 함께 있었던 참새를 알아보게 된 것은 항상 함께 했던 스스로의 영혼을 비로써 발견하는 것과 연관될 수도 있다. 에딘저는 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특성을 연금술의 상승(*sublimatio*)작업 중 순환(*circulatio*)작업과 관련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되는 “헤르메스의 에메랄드 경전”의 한 구절이다.

그것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랐으며,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과 천상의 기운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온 세상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모든 어둠은 너로부터 달아날 것이다.¹²⁰⁾

“상승(*sublimatio*)”이라는 용어는 “높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sublimis*로부터 유래했다. *Sublimatio*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는 낮은 재료(lower substance)가 상승적인 움직임에 의해 더 높은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새가 가지는 성스러움은 영혼의 비둘기가 세례 시에 예수에게로 내려와 앉은 것과, 독수리가 로마로 가는 타퀸 프리스커스(Taquin Priscus)에게 내려와 앉는 것은 왕으로서 운명 지워진 그의 위상을 나타낸다고 하겠다.¹²¹⁾

118) Edinger E(1985) : *Anatomy of Psyche :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Illinois, p120.

119) Jung CG(1944)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p462.

120) Edinger E(1985) : *Anatomy of Psyche :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Illinois, p142.

121) 위의 책, p169.

‘알’은 잠재적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단위다. 즉 그것은 작업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작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 ‘알’이 실현되기 위하여 부화되는 내용을 다룬다. 이 부화됨은 언제나 연금술의 구절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과 심사숙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연금술에서 하얗게 만들기에 해당하는(*albeido*), 작업의 두 번째 부분, 즉 ‘알’의 부화는 결국 ‘알’에서 살아있는 새(정신)가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다.¹²²⁾ 이집트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에서 이집트 태양신인 라(Ra)는 나일강의 거위(the Nile Goose)가 낳은 ‘우주 알’에서 부화되었고 “그것이 자란다. 내가 자란다. 그것이 산다. 내가 산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¹²³⁾

마감하는 글

창조신화의 흑암이나 알이 출현하고 품어지는 과정은 창조를 예비하는 어둠의 시간으로서 상실과 고통으로 경험될 수 있으나 자기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주어진 물질을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미분화된 초기 물질로 환원(reduction)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절차는 심리치료에서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인격은 그것이 이완되거나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신의 변환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의 우울감이나 고뇌의 체험은 개성화 과정의 상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험으로서 볼 수도 있다.

무의식은 알려지지 않은 정신적인 것, 즉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모든 것, 언젠가 의식했지만 이제는 망각된 모든 것, 나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었지만 의식이 유념하지 않은 모든 것, 내가 의도 없이, 주의하지 않고,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고자 하고, 행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는 비로소 의식에 나타나게 될 모든 미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말하자면 모두 어느 정도 의식될 수 있거나 적어도 언젠가 한 번은 의식되었고 바로 다음 순간에 다

122) Abt T(2005) : 《응 심리학적 그림해석》, 이유경 역, 2008, 분석심리학연구소, p175.

123)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p60.

시 의식될 수 있는 것이다.¹²⁴⁾ 우리가 무의식상태에 있다는 것은 마치 폰 프란츠가 <창조신화>에서 소개한 에스키모 창조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그 주위에 항상 있어온 참새(의식성)를 어두워서(무의식) 보지 못한 것과 같다.

알의 상징성이 가지는 분석심리학적 의미는 전의식적인 전체성에서 의식, 자아가 탄생하는 것과, 한 개인의 의식화 과정으로 우주적인 깨달음(cosmic awakening)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알의 상징성은 출현-품음-분리라는 전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자 세계관의 탄생으로서 깨달음과 관련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국어번역 포함) 문헌

1) 창조사회관련 문헌

- 김열규(1976) : 한국의 신화, 일조각, 서울.
 김열규(2003) :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김현선(2001) : 세계의 창조신화 서설,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연구 총서 1.
 박시인(1994) : <알타이 신화>, 청노루.
 서유원(2002) : 中國天地開闢神話에 보이는 天地의 形象, <中語中文學>, 18.
 서대석(1997) :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대석(2002) :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창조신화의 시계, 전북대 인문학 연구소, 소명출판.
 손진태(1930) : '창세가',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孫晉泰(1981) : 朝鮮巫覡의神歌, 孫晉泰先生全集 5, 太學社.
 임석재(1989) : 한국구전설화, 전집 2, 평민사.
 임석재(1991) : 우리나라의 天地開闢神話, <比較民俗學>, 7.
 장주근(1952) : 한국의 신화 성문각.
 張籌根(1973) : 韓國의民間信仰, 東京金花舎.
 장주근(1998) :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전인초, 김선자(1998) : <중국 신화전설>, 개벽편, 민음사.
 赤松智城, 秋葉隆(1937) : 朝鮮巫俗の研究, 大阪屋號書店.
 정재서 역(1991) : 산해경, 민음사.
 최상수(1984) : 韓國民間傳説集, 通文館.

124) 용 CG(2002) : 용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44.

현용준(1976) : 제주도 전설, 서문당.

현용준(1996) : 제주도 신화, 서문당.

玄容駿(1980) :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2) 분석심리학 및 상징 관련문헌

김진숙(2012) : 창조신화, 특히 ‘알(卵)’의 상징성과 그 분석심리학적 함의, 한국 융 연구 원 전문과정 수료논문.

이기영(1976) : 《원효사상》, 원음각, 서울, 1976.

이도희, 이부영(1993) : 심리학적 상징으로서의 ‘어린이’, 《심성연구》, 12 : pp1-40.

이부영(1980) : 精神病患者의體驗에 나타난 原型相(1), 빛의 體驗을 중심으로 最新醫學, 23(1) : pp53-64.

이부영(1984) : 한국인의 꿈에 나타난 원형상 I, 정신의학보, 별책, 제8권.

이부영(1985) : 한국인의 꿈에 나타난 원형상 II, 정신의학보, 별책, 제9권.

이부영(1987) : 한국인피분석자의 꿈에 나타난 개성화과정, 심성연구 별책, 제2권 1호.

이부영(1997) : ‘再生’의 象徵的意味, 심성연구, 12 : pp89-114.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개정판), 서울 : 일조각.

이부영(1999) : 《그림자》, 한길사.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이유경(1996) : 서양연금술의 이해, 《심성연구》, 제15호.

이유경(2001) : 창조신화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세계의 창조신화》, 신화아카데미 연구 총서 1권.

이죽내, 김현준(1995) : 元曉의 心性論에 관한 分析心理學의 研究, 神經精神醫學, 34 : (2), pp345-367.

이죽내, 김현준(1994) : 元曉가 본 아래아식의 分析心理學의 考察, 神經精神醫學, 33 : (2), pp342-352.

이죽내, 김현준(1993) : 元曉가 본 止觀에 대한 分析心理學의 考察, 《심성연구》 8 : (1, 2), pp41-56.

융 CG(2001) : 융 기본저작집 1,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출판사, 서울.

융 CG(2002) : 융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융 CG(2002) : 융 기본저작집 5,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출판사, 서울.

융 CG(2004) : 융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융 CG(2004) : 융 기본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융 CG(2005) : 융 기본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융 CG(2006) : 융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2》, 두산동아, 서울.

Abt T(2005) :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이유경 역, 2008, 분석심리학연구소.

Ammann Ruth(1991) : 《용 심리학적 모래상자 치료》, 이유경 역, 2009, 분석심리학연구소.

Jaffe A(1962) :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이부영 역, 1989, 집문당.

Von Franz ML, Boa F(1994) : 《용학파의 꿈 해석》, 박현순, 이창인 공역(2004), 학지사.

2. 외국 문헌

1) 창조신화 관련 문헌

Edinger Edward(1984) :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ner City Book, Toronto.

Harding Esther(1949) : *An Old Tales Retold : Creation Myths of Babylonia*, Spring, The Analytical Psychology Club of N.Y. Inc.

_____ (1964) : *The Parental Image : Its Injury and Reconstruction*, A Study in Analytical Psychology, G.P. Putnam's Sons, for The C.G. Jung Found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_____ (1965) : *The 'I' and the 'Not-I',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Bollingen Series LXXIX, Princeton University.

Neumann Erich(1949) : *The Origins of History of Consciousness*, Bollingen Foundation Inc.,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2) 분석심리학 및 상징관련 문헌

Breasted James(1959) : *Development of Religion and Thought in Ancient Egypt*, New York, Harper, Torch books.

Cassirer Ernst(1965) :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 Volume 2 : Mythical Thought*, Ralph Manheim (Translator), Charles W. Hendel (Contributor), Yale University Press.

Cirlot JE(1983) :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Kagan Paul, London.

Cooper JC(1978) :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 Hudson.

Dowson JA(1968) : *A Classical Dictionary of Hindu Mythology*,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Dunn-Fierstein P(1993) : *Exploring the Egg : The Creative Center, Journal of Sandplay Therapy*, Vol. 11-2, Spring.

Edinger E(1985) : *Anatomy of Psyche :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Illinois.

Edinger E(1986) : *The Bible and The Psyche : Individuation symbolism in the Old Testament*, Inner Books, Toronto.

Elders George(1996) : *The Body, An Encyclopedia of Archetypal Symbolism*, Shambala,

- Boston & London.
- Hillman James(2005) : *Senex and Puer*, Spring Publications, New York.
- Iandelli, Carl L(1968) : “The Serpent Symbol.” *In The Reality of the Psyche :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for Analytical Psychology*, edited by Joseph B. Wheelwright. New York.
- Jung CG(1930–1934) : *The Vision Seminars I. II.*, Spring Publications, Zurich, Switzerland.
- _____ (1921) : C.W. 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24) : C.W. 5, *Symbol of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35) :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3rd printing, 1989.
- _____ (1944) : C.W. 12, *Psychology and Alch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rd printing, 1989.
- _____ (1950) : C.W. 9, II,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68)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nd ed. 1970, 7th printing, 1989.
- _____ (edi. Shamdasani, 2009) : *The Red Book*, W.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 Maier(1618) : *Atlanta Fugiens* : The Magnum Opus Edition Series # 22, edited by Godwin, Joscelyn, 1987.
- Neumann Erich(1956) : *The Great Mother*, Bollingen Foundation Series LIV, New York.
- _____ (1963) : *The Child*, English trans. by R. Manheim (1973), Shambhala Boston, 1990.
- Rosenberg Ami(2010) : *The Book of Symbols : Reflections of Archetypal images*, Taschen, Germany.
- Thompson S(1975) :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London.
- Von Franz ML(1974, 1995),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1964, 강의),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1995.
-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Von Franz ML(1980) : *Alchemy : An Introduction to the Symbolism and the Psychology*, Inner City Book, Toronto, Canada.
- Von Franz ML(1974) : *Shadow and Evil in Fairy Tales* (1964 강의), 1974, 1995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1995.
- Von Franz ML(1981) : *The Problem of the Puer Aeternus*. 2d ed. Santa Monica.
- Von Franz ML(1974) : *The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Wilhelm(trans) :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trans German to English by Bay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Wicks Francis(1927) : *The Inner World of Childhood*, 3rd ed. 1988, Sigo Press, Boston.

Shim-Sŏng Yŏn-Gu 2012, 27 : 1,2

〈ABSTRACT〉

Jungian Interpretation of Creation Myths Focused on Egg Symbolism

Jin-Sook Kim *

In Jungian psychology, creation myths regard as the story of unconscious and preconscious processes(projection of archaic identity) which describe not necessary the origin of our cosmos, but the origin of man’s conscious awareness of the world. Therefore projections have nothing to do with matter itself but experience of one’s own unconscious. Jung emphasizes importance to understand projection in individual’s conscious experience rather than in philosophical doctrin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unconscious process of creation myths with egg symbolism in clinical cases to present universal feature of Cosmic/alchemical egg.

Psychologically, creation myths retold when human mind needs new order. Depending on the attitude of ego, it can be sudden expansion of consciousness or contamination of ego by unconscious. In this study, ‘chaos(*messa confusa*)’ in creation myths as archaic identity, experience of uroboros or infant, and *nigredo* state in alchemy. ‘Separation of primordial parents’ as beginning of consciousness refers to *separatio* operation in alchemical process. ‘Light’ as attainment of consciousness.

Discussion of psychological meaning of egg starts with amplification which include the concept of cosmic/alchemical/philosophical egg. Egg symbolism in this study refers to emergence of egg, *tapas*/brooding of egg, and separation of egg. Emergence of egg as a state of preconscious totality, psychic wholeness conceived as the thing which came before the rise of ego consciousness. Discussion of concepts such as *Shiva bindu*, *hiranyagarbha*, germ of gold, *Tathāgata-garbha* follows. ‘*Tapas*/brooding of egg’ as concentration of all psychic energy into one point for self reflection. Discussion includes *The I Ching* Hexagram 61,

image of brooding egg identified with inner truth, Wonhyo's concept of *jikwan-sasang*, and Gnostic idea of *Ennoia*, introverted act of thinking, as well as the concept of 'Night Sea Journey'. 'Separation or hatching of egg' regarded as the idea of sudden illumination, *Phanes*, the shining God, and "sun-point," in alchemy. Birth of fledgling as birth of new personality.

As a conclusion, psychological meaning of cosmic egg/creation myths is the story of separating from 'Not-I'(unconscious, object, undifferentiated) to 'I'(ego, subject, differentiated) which shares the same meaning as individuation process.

KEY WORDS : Creation myths · Egg · *Tapas* · Consciousness.

**Professor,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Myongji University, Certified Jungian Analyst, Seoul, Korea*